



+ 정종완 · KBS 기술관리국 기술기획팀

Let's rave with ELECTRONICA!

Daft Punk Alive 2007 and Daft Punk & Leiji Matsumoto-Interstella 5555 DVD, 2003



이번 호에는 특별히 한 장의 음반과 한 장의 DVD를 소개하려 한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필자만 고생하여 보시는 분들이 풍족히 행복한 감상을 할 수 있다면 기꺼이 라는 생각으로 말이다. 일단 이번에 소개하는 Daft Punk라는 밴드는 프랑스의 듀오(2명으로 구성, duo) 뮤지션으로 전자 음악(뉴웨이브, 테크노, 트랜스 등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지만 여기에선 일렉트로니카로 통칭하자)을 하는 밴드로서 2007년도의 라이브 실황 CD와 은하철도999를 프로듀싱 한 일본 애니메이션계의 거장 마츠히모토와의 합작인 "Interstella 5555" 애니메이션 DVD이다.



뉴웨이브 뮤직과 Electronica

10여 년 전 국내 인기가수 신해철의 "CROM" 앨범이 발매되고, 이윤정이라는 여가수가 Prodigy(미국 Techno 밴드) 성향의 앨범을 발표했을 때, 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평론가들은 「70년대 말의 복고사운드에 묘한 신디사이저 음원이 더해졌을 때 유치함 내지는 뽕필스러움보다 그렇게 진보적일수가 있구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 사실은 다분히 70년대 말 영국에서 비롯한 뉴웨이브 사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테크노(Techno), 일렉트로니카(Electronica), 트랜스(Trance), 라운지(Lounge)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어지는 전자 음악은 1970년대 후반 영국의 "David Bowie"라는 뮤지션을 통해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David Bowie의 음악은 Twistered Sisters의 Punk Rock의 또 다른 표현방식(일렉트로닉적인 면, 미학적인 면)이자 동시대의 카운터 컬처(Counter Culture)임이 분명했다. 이 부분은 지금 소개하고 있는 Daft Punk 밴드가 초기에 다분히 Punk Rock 밴드였다가, 대중 음악에는 냉철한 프랑스라는 지역 색에 묻혀 있다가 그들만의 전자 음악으로 돌변한 것과 태생적으로 너무 흡사하다.

반복적인 리듬섹션과 기타리프가 메인인 되는 Punk Rock과는 달리 British(정말로 영국은 진보 음악의 아지트인 듯 싶다, Pink Floyd며 Klaatu 등 프로그레시브와 아트 락을 보라) New Wave는 건반/컴퓨터 등 Electronic Synthesizer 연주방식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그 뿌리를 이루는 냉소적인 보컬과 비판적 의식체계는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이즈음 순수 Punk와 New Wave를 절묘하게 접목한 그룹이 탄생하는데 바로 "Sting"이 리드하고 있는 「POLICE」라는 밴드다. 그 후 Reggae의 주류로서 UB40, Specials, Bad Manners 등 Reggae/Ska 밴드들에게도 영향을 주지만, 「POLICE」의 3명 멤버들의 천재성이란 가히 압도적이다. 5분 만에 완성했다는 "Everybreath You Take" 같은 ROCK 곡이나 "Roxanna" 같은 Reggae 등 이후 스팅에게는 현재 자신의 음악세계의 뿌리가 될 만큼 훌륭한 밴드였다.

70년대 말은 사회정치상을 담은 어둡고 무거운 Psychedelic Sound에서 시작하여 Post-Progressive Sound로 이어오게 되고, 80년대에 들어오면서 New Wave 사조는 좀 더 밝은 분위기의 Techno POP으로 바뀌게 된다.

일명 미디(MIDI)라고 불리는 기계문명의 거대한 활용법을 터득한 뮤지션은 공장 대학가와 클럽가를 뒤뜰들며, 그 신선함과 명료한 사운드를 무기로 사람의 긴장을 풀어주는 묘한 매력을 가진 마약같은 매개체로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 테크노 아티스트인 Gary Human을 비롯하여 미국적인 전자 음악 사운드를 태동시킨 디페쉬모드(Depeche Mode), 우리나라 롤러스케이트이장을 뒤쫓은 "Pet Shop Boys", "Art Of Noise", "OMD"가 활동한 것도 이 시기다.

이런 Techno의 대중화에 힘입어 결국 「NEW MUSIC」이라는 사조가 탄생하게 된다. 이런 설명을 드리면 어이없어 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뉴 뮤직이란 흔히 우리(한국이라는 지역)가 팝(POP)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Duran Duran", "Wham", "Eurythmics", "Culture Club" 등 <AUDIO+VIDEO> 결합형의 뮤지션들을 말한다.

80년대 중·후반 헤비메탈 음악에 장악된 전자 음악은 90년대에 이르러 「Trip Hop」과 「Techno Rock」이라는 변칙적인 장르를 탄생시킨다. 명상 음악이라는 괴이한 번역으로 불리던 트립 랩(Trip Hop)은 시종일관 몽롱한 분위기에 짐 모리슨같은 암울함 내지는 묘한 분위기, 반복적인 리듬패턴 등 어찌 보면 명상 음악과는 전혀 무관하다. 하지만, 깊은 명상에 빠지게 만드는 스타일이며, 락의 강렬한 디스토션 기타 사운드와 전자드럼이 어우러진 테크노 락(Techno Rock)은 90년대 중·후반 당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 나이트클럽에서 메인 음악으로 채택될 정도로 대단한 인기였다. 최근 Dance Performer와 Front Man을 위시한 음악 스타일도 사실 이러한 사조를 모방한 것이며, 테크노 락의 대중화에 힘입어 국내에서는 "서태지와 아이들"은 댄스 음악에 락을 믹스하게 됐다.

2000년대에 넘어오면서 전자 음악은 좀 더 진일보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요즘 말하는 Electronica, Trance, Lounge가 되는 것이다. 이제는 소프트웨어라는 가상악기(Virtual Instruments) 속에 보사노바, 큐반, 탱고, 펑크, 소울, 락 등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장르의 음악을 믹스하여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을 재창조하고 있다. 지금 소개하는 Daft Punk가 바로 그 첫 주자이다.

Electronica 음악의 특징과 Daft Punk

보코더, 토크박스, 오코튠은 일렉트로니카 음악의 가장 큰 특징을 대변하는 이펙트다. 초기 70년대 독일의 Kraftwerk에 의해 만들어진 보코더는 다소 조잡했다. 현재의 보코더는 모든 일렉트로니카 음악이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소위 미디(MIDI, 컴퓨터 음악)를 채용하는 가상악기(VST)를 따르게 된다. 대표적인 가상악기(VST)를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 소프트웨어 시퀀서인 REASON을 보면, 하드웨어와 100% 동일한 기능을 탑재하여 인접하는 보이스, 기타 등 악기와 패치하여 사용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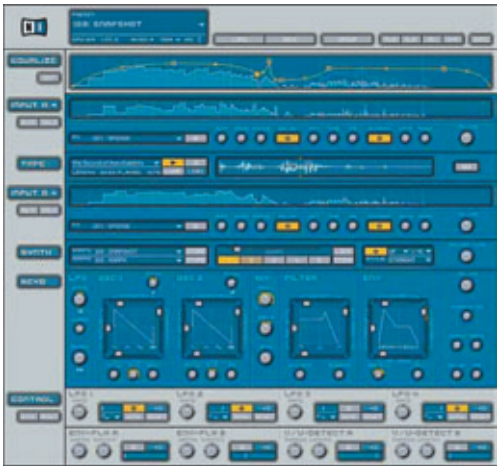
[초기의 Vocoder 장비]



[소프트웨어 시퀀서 REASON의 가상악기인 Vocoder 인터페이스]



REASON 외에 vokator, voice tone 등의 VST도 많이 쓰이며, 신디사이저와 일체형 타입의 microKORG, 초기 외장 이펙트 타입인 던롭(Dunlop)사의 Heil vocoder도 여전히 존재하다. 또한, 던롭사의 Heil vocoder를 기본 회로로 한 자작(D.I.Y) vocoder들도 많은 뮤지션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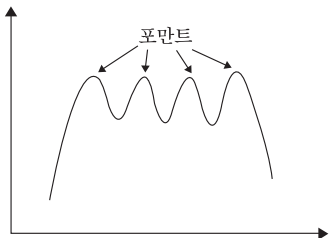


[스탠드얼론 스타일의 Vocoder S/W]



[하드웨어 타입의 Vocoder]

보코더에 대한 기술이론을 살펴보자. phase shift라는 이론에서 시작하여 pitch와 time을 조정하게 되는 기본 이론으로 FFT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오리지널 사운드의 변형을 만들게 된다.



그래프처럼 음성 내의 3~4개의 공진주파수(포먼트)를 만들어 모델화하여 각종 매개변수들을 전송하고 수신측에서는 수신된 매개변수들을 이용하여 다시 음성신호를 복원한다. 그런데, 사람의 음성생성체계의 모델을 이용하므로 음악이나 음성이 아닌 다른 신호는 정확하게 재생하지 못하고, 신호 처리 지연이나 모든 전력소비가 크게 된다.

유성음은 성대의 진동에 의한 소리로 주파수를 가지고 있으므로 주파수와 같은 반복적 주기를 갖는 펄스 발생기로 근사화시키고, 무성음은 좁혀진 성대를 통해 나오는 불규칙적인 마찰음으로 랜덤 잡음 발생기로 근사화시키게 된다.



[오리지널 사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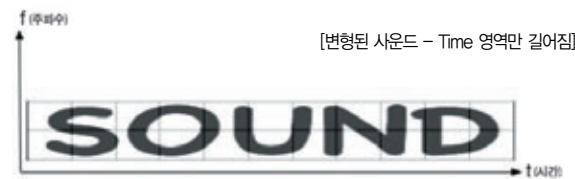
[높고 짧아진 사운드]



[낮고 길어진 사운드]



[오리지널 사운드]



[변형된 사운드 - Time 영역만 길어짐]



[변형된 사운드 - Pitch 영역만 높아짐]

토크박스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자. 보코더가 로봇간지를 가장 잘 내주는 Robotic voice effects로서 70년대 음악부터 심심찮게 사용되어 온 미래지향적이며, 복고적인 느낌(허비 행콕, 스티비원더, 어스 윈 앤드 파이어 등 흔히 대중적인 가수들의 음악을 들어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이라면, 토크박스는 이펙트의 개념이다.

토크박스는 60년대부터 쓰인 걸로 추측되지만 각종 신디사이저와 새로운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스티비원더가 키보드에 연결해서 72년에 사용한 걸로 기록에 나와 있다. 이는 입 모양, 혀의 위치 등의 스킬로 다양한 소리(피터 프램튼, 제프 벅, 브라이언 메이이 기타에 연결하듯)를 표현했지만, 역시 토크박스 주류는 보이스를 이용한 흑인 음악의 필드였다.(8월호에 소개했던 스티비원더 라이브 DVD에서 “바카라의 Close To You”가 토크박스를 이용한 곡이다)

요즘 음악계의 최고 유명인사 오토튠이다. 일단, 오토튠은 소리의 피치를 조절해 주는 기술로 철저하게 장비의 개념이다. 아마 이 부분이 오토튠 사용 자체에 “날로 먹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 같다. 비슷한 소리를 내주지만, 연주를 해야 사용가능한 이펙트 토크박스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심한 거부 반응을 보진 못했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 오토튠은 본질이 아니라는 생각이지만, 팝과 가요를 통틀어 신인가수나 가창력이 떨어지는 뮤지션을 보면 오토튠이 가히 신의 장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지, 그냥 기타에 이펙트 거는 것처럼 판단하고 감상한다면 그저 그럴 뿐이다.

이런 이펙트 성향의 하드웨어 대량공세를 배경으로 Daft Punk는 등장한다. 프랑스 태생인 두 명의 우주인(멤버 두 명은 항상 우주복을 연상시키는 복장을 하고, 헬멧(?)을 뒤집어쓰고 무대에 나타난다)은 1993년 “Darling”이라는 락밴드로 출발해서 상송 지킴기에 바빴던 냉소적인 프랑스의 음악을 등지고, 드럼머신과 신디사이저로 무장한 전자 음악이라는 새로운 등지를 만들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 밴드명인 “Daft Punk”에 Punk가 남게 된 것은 어찌 보면 태생적 시련인 것이다.

공연 음향 및 현장 스케치

2007년 뜨거운 6월, 프랑스 파리의 Bercy라는 대규모 공연장에서 펼쳐진 Daft Punk Alive 라이브 공연은 250여대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카메라와 레이저빔, 무빙라이트 등 화려한 특수효과로 무장한 채 펼쳐졌다. 보통의 일렉트로니카 라이브가 그러하듯 디제잉과 즉석 퍼포먼스 뮤직 에디팅을 기본 바탕으로 메인 무대 중앙에 위치한 DJ박스에 Daft Punk 듀오가 위치해 있다.



[DJ 스테이지와 트레이드마크인 이모션 디스플레이 헬멧]

공연 SET LIST

- | | |
|-------------------------------------|----------------------------------|
| 1. One More Time | 9. Something About Us. |
| 2. Aerodynamic | 10. Voyager |
| 3. Digital Love | 11. Veridis Quo |
| 4. Harder, Better, Faster, Stronger | 12. Short Circuit |
| 5. Crescendolls | 13. Face To Face |
| 6. Night Vision | 14. Too Long |
| 7. Superheroes | 15. Aerodynamic(Daft Punk Remix) |
| 8. High Life | |

여느 락 밴드나 가수들처럼 라이브 연주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 관계로 일렉트로니카라는 장르는 소프트웨어의 힘을 빌린다. Daft Punk의 공연도 물론 그렇다.

Ableton Live라는 미디시퀀서 software가 메인으로 사용됐고, Behringer BCR2000 MIDI controllers와 JazzMutant Lemur touchscreen pad를 이용하여 하드웨어를 원격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라이브 퍼포먼스를 위한 Minimoog Voyager RME[7] units가 있다.

종합해 보면, 4대의 Minimoog Voyager와 2대의 Behringer mixers를 이용하여 그들 음악을 mix, shuffle, trigger loops, filter, distort samples, EQ in and out 및 신서사이저 line 들을 이조(transpose) 또는 재정렬(destroy and deconstruct) 한다. 또한, 이 라이브공연은 Catalyst v4를 이용한 디지털 소프트웨어 조명과 Final Cut Pro 툴을 기본으로 하여 eight-core Mac Pro로 최종 영상편집을 마쳤다고 한다.



[시퀀서 소프트웨어 Ableton Live]



[Behringer BCR2000 MIDI controllers]



[JazzMutant Lemur touchscreen pad]



[Minimoog Voyager]

애니메이션과의 만남

글머리에서 약속드린 것처럼 두 장의 앨범 중 이제 두 번째 앨범을 소개하려 한다.

“은하철도999”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일본의 애니메이션 감독인 Leiji Matsumoto와의 합작품 이 바로 지금의 DVD이다.

“Something about us”, “Digital Love” 등 인간의 감성적인 부분과는 거리가 있는 음악장르와 서정적인 멜로디를 이처럼 애니메이션이라는 디스플레이로 표현해낸 것은 분명히 중독될 수밖에 없다. 또한, 여타 일본 애니메이션도 그러하듯 80~90년대 유행하던 우주유영(宇宙遊泳)류의 복고적이면서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연출을 자랑한다. 마치 달콤한 노래를 아무리 외치고 있어도 마음 한구석은 저 넓은 우주 속을 미아처럼 떠도는 슬픈 사랑의 연가로 들린다는 것이다.

Daft Punk의 뮤직비디오의 대부분 곡도 사실 이 애니메이션의 영상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이니, 가히 이 DVD가 차지하는 영향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기계문명에 지친 현대의 음악 마니아들이라면 가끔씩 Daft Punk의 애니메이션 뮤직M/V를 감상하시는 것도 좋을 듯 싶다.

<http://www.bacfilms.com/site/interstella>



[우주 공상만화를 연상시키는 뮤직비디오]

마치며

보통 문화나 주변의 산물들이 발전하면 음악도 덩달아 발전하기 마련인데 특이할 정도로 프랑스는 상송이라는 국민 음악 수호에 앞장서다보니 80년대까지 여러 가지 타 장르에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하다 보니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너무나 더덕져 이렇다 할 유명한 뮤지션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80년대까지 '유러비전 송 페스티벌'을 보면, 프랑스 참가자들은 100% 자국의 상송을 불러)이었다. 그 이후 90년대 들어 새로운 음악 사조에 목말라있던 프랑스 대중이 의도적으로 지지하게 된 밴드가 바로 Daft Punk라고 한다. 비로소 한동안 그들이 찾던 Contemporary Musician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요즘 자상파, 케이볼,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스타일과 인공음원으로 무장한 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음악들이 대중들을 흔들며 대고 있다. 가끔은, 아니 이제는 다분히 포인트(hook)가 대세인 시대에 살고 있는 듯 하다. 과연, 우리의 음악 필드가 누군가를 ◎아가고만 있는지, 아니면 혼자만의 착각 속에 독창을 하고 있는지, 우리 대중들도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지지해줘야 할 때가 온 것은 아닌가?

혹자는 클래식과 재즈를 비교하면서 이 세상 어느 음악 중에서도 가장 서로 이해 못하는 음악 스타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음악의 비교우위가 아니라 누가 대표성을 띠느냐에 있는 듯 싶다. 이 시대의 아티스트, 뮤지션은 바로 우리 대중의 몫인 것이다.

참고 자료

- 관련 인터넷 사이트

- <http://www.soundhack.com>(보코더 자료)
- <http://www.daftpunk.com>
- <http://www.daftalive.com>
- <http://www.bacfilms.com/site/interstella>(동영상 클립)

- 참고문헌 및 자료

-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일렉트로니카”

- best album

- Homework – March 25, 1997
- D.A.F.T.: A Story About Dogs, Androids, Firemen and Tomatoes – 1999
- Discovery – March 13, 2001
- Human After All – March 14, 2005
- Alive 1997 (live album) – November 6, 2001
- Interstella 5555: The Story of the 5 Secret 5lar 5ystem – 2003
- Daft Punk's Electroma – 2006
- Alive 2007 (live album) – November 20, 2007

- 역대 수상작

- 〈Alive 2007〉 Grammy Award for Best Electronic/Dance Album in 2009
- 〈Harder Better Faster Stronger(Alive 2007)〉 Grammy Award for Best Dance Recording in 2009